

## <경쟁사 비교>

### ① 경북대신문

#### 대학생을 위한 금융상품 비교

노영규(사범대 영어교육 11) 씨는 “재테크에 관심도 있고 하고 싶기도 한데 학교생활이 바쁘다보니 알아볼 틈도 없었고 어디가서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어떤 할인 혜택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28개 대학 2천 4백 9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0년 대학생 금융이해력 지수(FQ-Financial Quotient)’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금융이해력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60.8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인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사회진출을 앞둔 예비경제인이 갖춰야 할 수준보다 낮다”고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사회 진출을 앞둔 본교의 ‘예비 경제인’들을 위해 은행에서는 어떤 금융상품들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본교 주위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대구은행에서 내놓은 대학생들을 위한 금융상품들을 소개한다.

체크카드 종류	KB 국민은행 락스타 체크카드 	대구은행 단디 체크카드 	농협 글로벌 체크카드 	신한은행 ISIC 체크카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금액 5만원 이상시 2500원 정액 할인.</li> <li>● 전국 대중교통 10% 청구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수수료 면제.</li> <li>● 프로스포츠 경기 인터넷 예매시 1500원 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익을 비롯한 어학시험 5~10%할인.</li> <li>● ‘특렌특’ 전화영어 50% 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교 YES통합정보 시스템과 연계해 간단한 절차로 발급 가능.</li> <li>● 해외 대중교통 이용 시 학생 할인 가능.</li> </ul>

#### KB 국민은행, 樂 Star와 함께

본교 복문 건너편 상가에 위치한 국민은행 경북대 캠퍼스에는 대학생 전용 복합공간인 락스타존이 있다. 이 곳에서 학생들은 세미나실, 카페로 이용하고 공부를 하거나 인터넷 사용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즐길 수 있다.

대학생들을 위한 KB국민은행의 락스타 금융상품은 크게 3가지로 락스타 통장, 체크카드, 적금이 있다. 먼저 락스타 통장은 저축예금 형식으로 기본이율이 연 0.1%이지만 수수료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고객에게는 연 4.0%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또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등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락스타 체크카드는 CGV, 스타벅스, 아웃백/VIPS 환급할인 등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준다. 성웅기(인문대 영어영문 07) 씨는 “CGV 할인과 같은 혜택이 많아 좋다”며 “락스타 상품 3개를 다 가입했는데 다른 금융상품보다 이율이 더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 락스타 체크카드는 후불제 교통카드로 전국의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전은진(인문대 영어영문 07) 씨는 “타지역에서 교

통카드를 쓸 수 없어 불편했는데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락스타 적금은 자유적립식 적금 형식으로 락스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연 0.1%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가입자가 만기해지 시 목표금액을 달성했거나, 장학금 수령, 자격증 취득 등의 성취를 하면 연 0.1%의 이율을 가산해준다. 이 세 가지 상품에 가입한 본교 학생들은 현재 까지 2천명 정도라고 은행 측은 밝혔다.

한편 경북대 감꽃존 박은영 지점장은 “학생들이 금융 상품에 친근함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학생 맞춤 이벤트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대 감꽃존은 지난 달에는 락스타 상품에 많이 가입하는 동아리나 학과에 상금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했고, 이번 달에는 금융관련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락스타 상품과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4개의 항목 중에서 3개를 가입하면 각 락스타 지점마다 1명을 뽑아 몽골, 티베트로 해외배낭여행을 보내주는 행사가 있다.

### 대구은행, ‘단디 체크카드’

본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단디 체크카드는 영화,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 놀이공원, 커피점 등에서 할인 혜택이 있다. 또한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서비스가 적용된다.

대구은행 경대지점 행원 배라경 씨는 “대구은행에는 경북대학교 학생에 대한 환율 우대, 각종 수수료 면제, 학교와 연계한 학생증 발급 등 혜택이 많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임수빈(자연대 생명공학 08) 씨는 “체크카드와 학생증이 연계되어 있어서 쓰기 편하다”고 말했다.

또 대구은행에서는 다양한 펀드상품 판매도 눈여겨 볼 만하다.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증권펀드와 한국투자 삼성그룹 증권펀드가 인기가 높다. 한국투자 네비게이터 증권펀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택해 투자하는 주식이고, 한국투자 삼성그룹 증권펀드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 삼성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두 주식 모두 주식은 60% 이상, 채권은 40% 이하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배 씨는 “대구은행에는 다양한 자산운용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펀드를 선택해 효율적인 자산운용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 은행창구 등으로 1학기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장학금, 아이패드, 전자사전 등의 경품을 주는 행사가 있었다. 또한 이달 30일까지 생년월일이 1982년 1월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 이내인 고객이 단디 체크카드를 발급하면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디지털카메라 등의 경품을 준다.

### 신한은행의 ‘캠퍼스 플랜’

본교 복지관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신한은행은 대학생들을 위한 ‘캠퍼스플랜 저축예금’을 선보이고 있다. ‘캠퍼스 플랜’은 대학생이 헌혈, 장기기증,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을 한다거나, 평균 학점이 만점기준 70%이상인 학생, 일정 점수 이상의 어학 성적을 제출하면 CD/ATM 이용수수료가 면제되고 금리를 우대해 주기도 한다.

또 유학생에게도 환전/송금에 대한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이에 박지훈(경상대 경제통상 10) 씨는 “대학생활하면서도 은행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캠퍼스플랜은 가입계좌에 ‘급여’로 입금할 때 직장인플랜으로 자동 전환된다. 이처럼 많은 은행들이 대학생들을 잠재고객으로 인식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

는 은행에게 있어 대학생들이 미래의 고객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는 학생들이 해외 및 국내,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학생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누리게 해주는 세계 공통 디자인의 '국제학생증'이다. 신한은행 경북대지점에서는 이 '국제 학생증'을 본교 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학생증이 있으면 학생항공권, 세계 각국의 교통편(기차, 버스, 페리 등), 여행상품 등에 있어서 학생 특별 요금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농협의 '스마티 패키지'

본교 북문 건너편 상가에 위치한 농협 경북대지점은 만 14세~ 33세의 '금융 새내기'들에 대한 상품(채움 스마티 패키지)을 선보이고 있다. '채움 스마티 통장'은 농협 최초거래 고객에게 우대 이율을 적용시켜주고 농협 스마트 बैं킹에 가입을 하면 추가로 우대 이율을 적용해준다.

농협의 '채움 글로벌 체크카드' 또한 어학원을 5~10%할인해주는가 하면, 어학시험(TOEIC, TOEIC Speaking, TEPS, JPT)에 대해서도 5~10%할인혜택을 부여하며, 해외대학 등록금 결제를 할 때 국제카드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도 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통장 하나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청약 가능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최소 2만원만 있으면 미성년자, 주택소유자, 세대주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농협중앙회 경북대점 이승재 계장은 "졸업 후를 대비해서 일부 대학생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납입금액이 적더라도 일찍부터 꾸준히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② 기사 머니투데이 2011.11.07

'젊은 고객 잡아라'..시중銀 '젊은 은행' 변신중

- 국민銀 락스타·신한銀 S20브랜드 런칭...콘서트 등 마케팅 활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0605595310031&outlink=1>

은행들이 미래의 잠재 고객인 젊은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생 전용 점포 신설은 물론 20대 전용 브랜드를 출시하고 고금리와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무장한 신상품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특히 콘서트, 배낭여행, 모의주식투자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면서 기존 은행의 보수적이고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젊은 고객들에게 파고들고 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9월 전용 브랜드인 'S20(에스이공)'을 론칭하고 본격적으로 젊은 층 공략에 나섰다. 젊은 고객들의 입맛에 맞으면서도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넣은 '신한S20체크카드'와 연3.2%의 금리와 각종 수수료 면제혜택이 있는 '신한S20통장'은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 신한S20체크카드는 출시 한 달 만에 10만좌를 돌파했으며, 연말에는 30만좌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은행은 지난 5일에는 젊은 고객들을 위해 여의도 한강 플로팅 스테이지에서 대규모의 'S20(에스이공)청춘

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날 페스티벌에는 다이나믹듀오, 델리스파이스, 조규찬 등 국내 유명 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영화배우 이범수, 뽀로로를 만든 최종일 대표 등 유명인들의 강연도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 신한은행은 지난 5일 젊은 고객을 대상으로 여의도 플로팅스테이지에서 'S20청춘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영화배우 이범수씨가 '꿈'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청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매년 1회씩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역시 올해 초부터 '젊은 은행'이라는 이미지 구축과 함께 상대적으로 분포도가 낮은 20대 고객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국민은행은 '락스타(樂 Star)'라는 대학생 전용 점포를 41개 신설한 데 이어 인디밴드 공연, 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상금 1억6000만 원을 걸고 대학생 모의주식투자를 열었으며, 우승자에게는 국민은행 입사 시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특전도 제공해 대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또 락스타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무료로 해외배낭여행을 보내주는 행사를 진행해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우리은행은 입출금 통장임에도 100만원까지 연4.1%의 고금리를 주는 '우리신세대통장'으로 젊은 고객 잡기에 나섰다. 이 상품은 고금리 혜택 이외에도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등 대부분의 수수료가 매월 총 10회까지 무료다. 또 오는 13일까지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270명을 선정해 CGV 영화관람권 2매 증정하는 등의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은행들의 이런 추세와 관련해 "포화된 시장에서는 고객군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젊은 고객은 미래의 잠재 고객이라는 측면에서도 가장 먼저 집중 공략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③ 기사 조세일보 2011.06.10 공인호기자

미래고객확보를 통한 지속성장을 위한 은행들의 경쟁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1/06/20110610117714.html>

국내 은행들이 유스(Youth) 고객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미래고객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은행들은 특히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감성 마케팅 공략이 용이한 여자대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9일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1,2학기 전과목 A+를 받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6명에게 등록금 반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씨티은행의 입출식예금 A+통장의 포로모션 행사를 기념해 진행됐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한국씨티은행 설립 이후 최초로 사회공헌사업과 마케팅 부문을 연계시킨 사례"라며 "'A+'라는 상품 이름이 학점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은 여성 금융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이화-씨티글로벌 금융 아카데미'를 출범시켰으며,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총 1380명의 학생들에게 금융실무를 교육해 왔다.

금융아카데미를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한달간의 인턴십 체험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씨티은행은 '한국씨티-경희대 공공(NGO)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대학생 우수금융논문공모전도 개최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 가운데서는 KB국민은행이 유스고객 유치에 가장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취임한 KB금융 어윤대 회장이 고려대 총장 출신이라는 점이 마케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은행은 올초 숙명여대와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대학 41곳 인근에 '락(樂)스타 Zone'을 신설했다. 이 영업점은 대학생들을 위한 세미나실, 영화·음악감상은 물론 콘서트와 취업설명회 등도 개최한다.

특히 이 영업점은 100만원 이하 소액예금에 4% 우대 이율을 적용하는 통장과 젊은층의 소비패턴을 감안한 특화 체크카드도 발급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출시 3개월만에 각각 10만좌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

경쟁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전국 주요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대학 내에 직접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서울대, 연세대를 비롯해 31개 대학에 입점해 있으며, 신한은행은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등 총 24곳 대학에 입점해 있다.

또, 하나은행도 고려대를 비롯해 총 17곳에 입점해 있으며 기업은행은 8개 영업점을 대학내에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의 경우 국내 최대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내 점포는 5곳에 불과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학생 고객을 공략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학교에 기부금을 내고 입점하는 방법인데 한번 계약을 맺게 되면 다른 은행으로 교체되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이화여대 등 전문 여성인력 배출이 많은 여자대학에 대한 입점 경쟁이 치열해 기부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전했다.